

고흥군, 벼멸구 발생 대대적 방제활동

오는 11일까지...벼 병해충 보완방제 기간 논 수시로 관찰...약제 충분 살포 자가방제

고흥군은 해안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한 결과 벼멸구의 개체밀도가 높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벼 병해충 보완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대적 방제활동 계도에 나섰다.

중국에서 유입된 벼멸구는 출수 후 이삭 익을 때에 접어들어 논으로 이동해 2-3세대를 거치면서 증식·확산되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주로 벼 포기 아랫부분에서 성충과 약충이 집단 서식하고 있어 방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제10호 태풍 하

이선이 통과 후 오는 11일까지 벼멸구의 중점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벼멸구는 비래해 충이기에 밀도가 높으면 방제했던 필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논을 수시로 관찰해 벼대 아래까지 약제가 충분히 살포되도록 자가 방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고흥군은 피해현장을 방문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멸구 등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 적기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수시,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340명

여수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한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1,340명(전세버스 319, 화물 1,021)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6억 7천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당초에는 영업장의 소재지나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화물운수업의 특성상 주소지와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5월 27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소지를 여수시에 둔 운수종사자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관외에 있어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공휴일 제외) 10일간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여수 시청 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후 현장에서 즉시 여수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경영 및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전세버스와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정선용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전검사 시스템 운영

순천시, 워킹스루·드라이브 스루 도입 대면접촉 최소화



순천시 코로나19 최전방에 설치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전국적인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의사, 간호사 등 60명이 방호복으로 무장하고 반년 넘게 신속한 현장 상담과 검사를 위해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팀은 다시 질서유지반, 검사대상자 분류반, 감염병 발생신고서 접수반, 검체 채취반, 의료폐기물관리반, 해외입국자 관리반, 이동검체반, 환자이송반, 검체분류반으로 세부적인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나 업무 수행에 있어 한몸이 되어 원팀으로

빈틈없이 움직인다.

처음에는 천막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성이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보건소에 비접촉식 워킹스루 3개를 도입하여 검사대상자와 의료진 사이에 아크릴벽이 설치돼 상호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무한구름에서 시작되어 대형마트로 확산되면서 검사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8월 22일 14시부터 팔마체육관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여 31일까지 운영하면서 확진자가 동선이 겹친 4,952명을 신속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건소 이외에도 순천의료원, 순천병원, 성가톨릭 병원 3개소의 민간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하면서 야간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5,775명의 검사를 실시하여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방하나 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태로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동선은 짧게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순천시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5곳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인원은 9일 오전 9시 기준 23,328명이다. 지난 8월 23일은 1일 2,364명으로 최다인원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시, 코레일 통합청사 결정

철도중심도시 재도약 기회·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순천시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가 순천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레일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전남본부와 광주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청사를 현재 전남본부가 위치한 순천으로 결정했다.

순천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고 과거 순천지방철도청이 위치해 있었던 철도중심도시로 여수해안박람회,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계

기로 KTX가 운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철도사업 중추도시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번 통합을 통해 약 1천명의 종사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통합청사를 순천으로 결정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순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

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전라도민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안전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양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

광양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중마동과 광영동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종사자 4명을 두 명씩 배치해 공영주차장 환경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한 주차장에 일부 시민들이 담배꽂초 등의 각종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환경정

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9월 중순부터는 총 8명으로 인력을 총원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양근 교통과장은 "주차장 환경이 개선되어 인근 상가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태경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임박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정2지구 상가 상인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친환경마스크

방역 환경 검사 시스템